

국토에
가치를
더하다

지적측량·공간정보 전문기관

LX 한국국토정보공사

[5487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
T. 063.906.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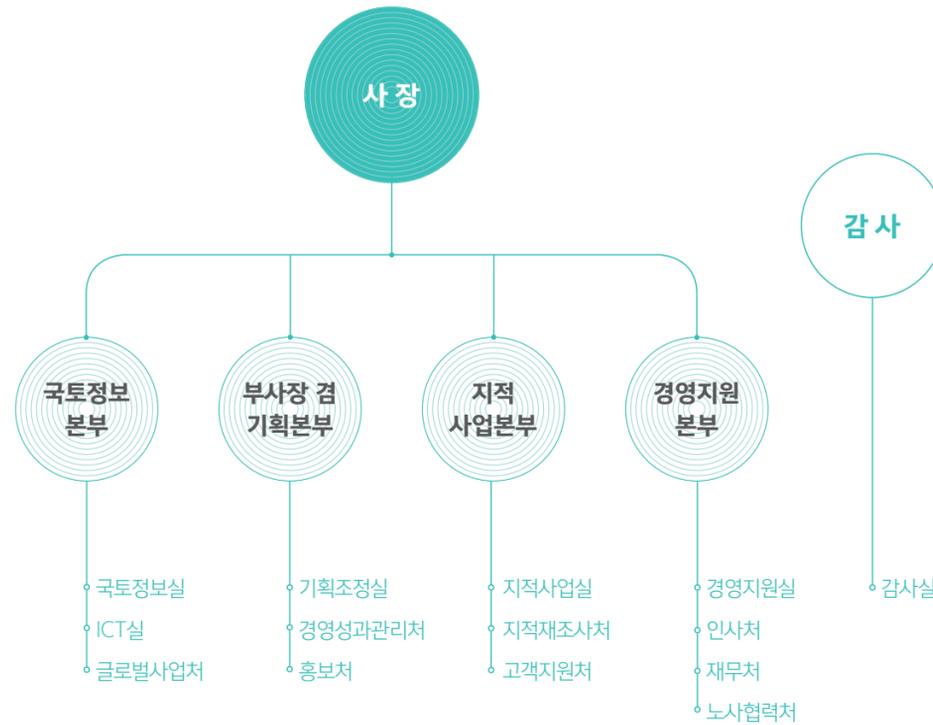


국토에
가치를
더하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
www.lx.or.kr

ORGANIZATION



교육원·연구원·지역본부 조직도



계	서울	부산 울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경남	제주
169	10	7	4	29	14	10	17	12	21	24	19	2

국토정보교육원	www.lxcti.or.kr (1714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동부로 213-20 [운학동 624]	031-8006-7021
공간정보연구원	lxiri.re.kr (55365)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63 [갈산리 662-7]	063-906-5617
서울지역본부	seoul.lx.or.kr (06053)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03 [논현동 90-2]	02-6937-2006
부산울산지역본부	busan.lx.or.kr (47706)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로 77 [온천1동 439-2]	051-794-5034
인천지역본부	incheon.lx.or.kr (21559)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51번길 42 [구월3동 1094-15]	032-713-2527
경기지역본부	gyeonggi.lx.or.kr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0 [인계동 1116]	031-250-0923
강원지역본부	gangwon.lx.or.kr (24282)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03 [후평2동 67-9]	033-815-8638
충북지역본부	chungbuk.lx.or.kr (2856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149 [사창동 242-1]	043-710-4218
대전충남지역본부	daejeon.lx.or.kr (35262)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12 [탄방동 653]	042-718-4025
전북지역본부	jeonbuk.lx.or.kr (5491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30 [인후동2가 1558]	063-240-2733
광주전남지역본부	gwangju.lx.or.kr (6194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02 [치평동 1213-2]	062-714-6804
대구경북지역본부	daegu.lx.or.kr (4262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로 8 [이곡동 1252-1]	053-714-7835
경남지역본부	gyeongnam.lx.or.kr (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6 [산월동 104-2]	055-250-5331
제주지역본부	cheju.lx.or.kr (63220) 제주도 제주시 북지로 북길 37 정한빌딩 [도남동 693-3]	064-909-3304
본사	www.lx.or.kr (5487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 [중동 800]	063-906-5105

Part 1

- 02 CEO MESSAGE
- 04 VISION | LX 비전 2025
- 05 HISTORY | LX 연혁
- 06 PRIDE | Excellent Today
- 08 SUSTAINABILITY | 윤리경영·사회공헌

Part 2

- 02 VALUE | 지적축량
- 06 PROGRESS 1 | 지적재조사
- 10 PROGRESS 2 | 국토공간정보
- 14 GLOBAL | 해외사업
- 16 GROWTH | 산업진흥



Part 1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토정보전문기관 LX

스마트 국토 시대를 향한 꿈, 글로벌 국토정보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국민의 토지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LX는 지난 40년간 우리 땅의 지적 역사와 함께 성장 해온 공공기관으로서 국민 중심의 국토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기본'에 충실한 성장을 추구해왔습니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온 LX가 새롭게 선택한 길은 '변화'와 '혁신'입니다.

LX는 2015년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지적사업에서 공간정보사업으로 영역을 넓혀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토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 획득, 4년 연속 대한민국 동반성장 혁신대상 수상, 3년 연속 공공홍보 혁신대상 수상 등 눈부신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2018년은 'LX 비전 2030'을 통해 새로운 비상을 시작하는 원년이기도 합니다. LX는 스마트 국토 시대를 선도하고 국민 중심의 국토정보 서비스를 위한 '국토정보 플랫폼 LX'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LX는 최우선 과제인 지적사업·공간정보사업 서비스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재난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과 같이 국민의 삶과 직접 맞닿은 국토정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내 지적 제도와 시스템의 우수성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함으로써 '글로벌 국토정보 전문기관'의 위상을 드높이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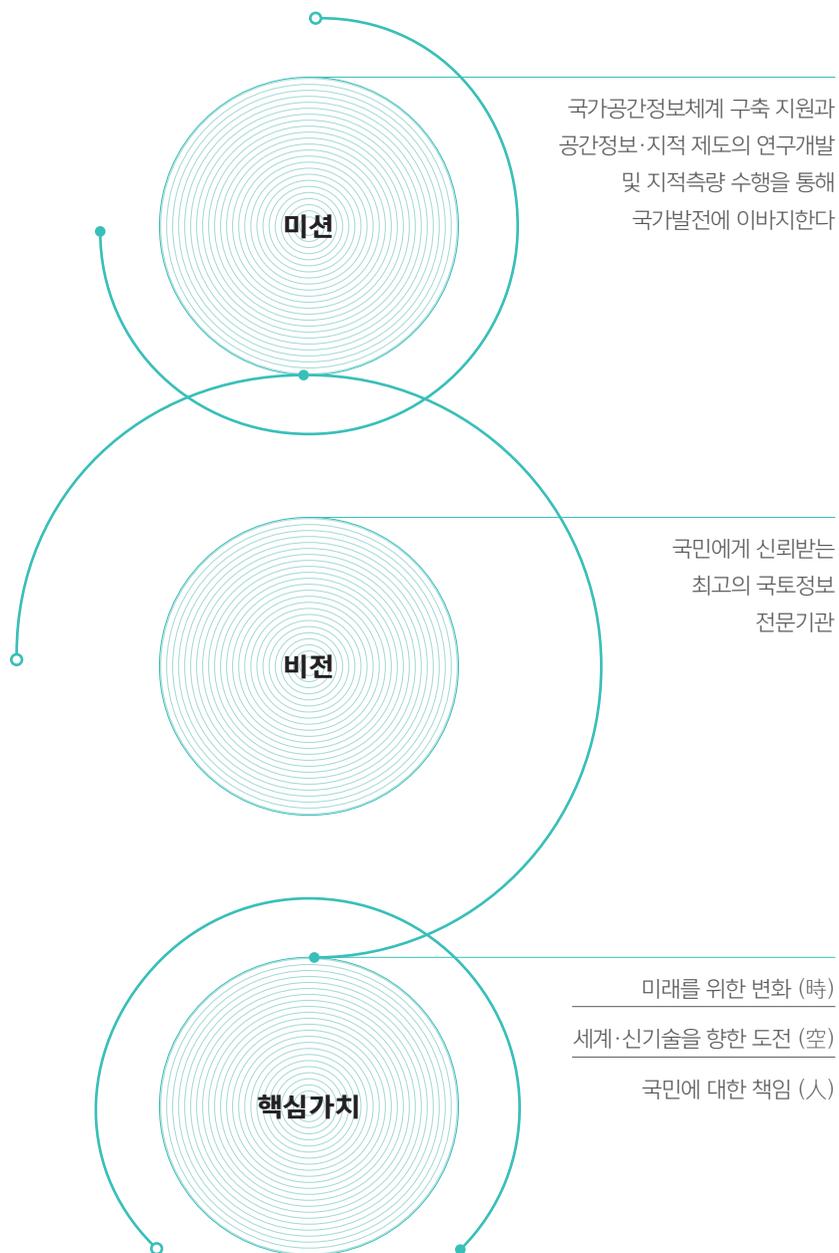
그동안 LX는 우리 국토에 대한 열정과 헌신으로 전문성을 키워왔습니다. 지적사업과 공간정보사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우뚝 서겠다는 LX의 비전은 긴 호흡으로 꾸준히 혁신할 때 가능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LX는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통해 국민의 편의 증진, 국가 경쟁력 제고, 글로벌 국토정보 메카로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국토정보 전문기관으로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하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최창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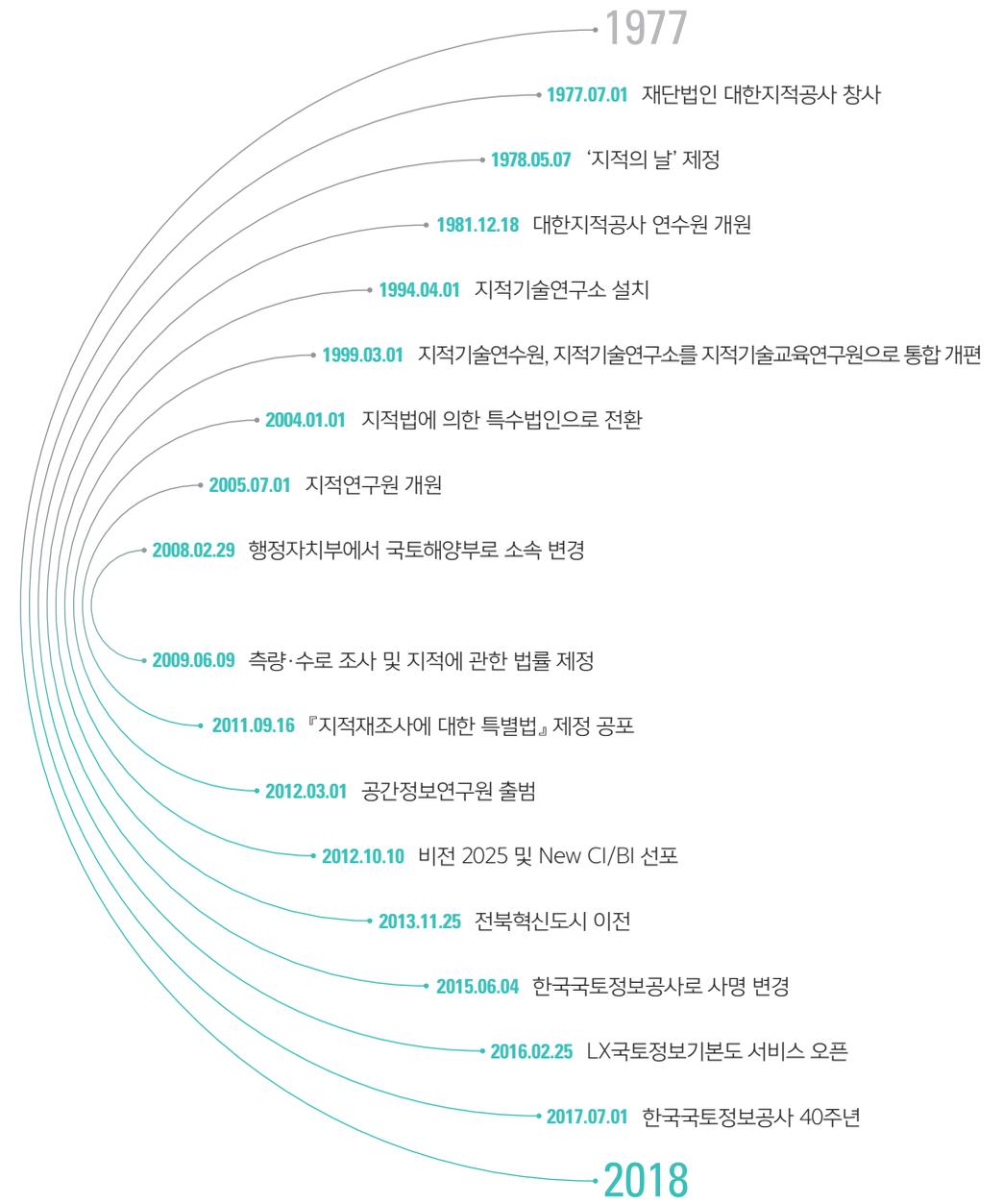


LX 비전 2025

LX는 공간정보를 통해 국토의 지속가능한 가치를 확인하고 개발하기 위한 미래성장 중심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LX는 '비전 2025'를 통해 지적측량사업에 편중되었던 한계를 벗어나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인 공간정보사업을 본격화하고 국토 정보에 대한 통합 조사와 관리를 추진해 나갑니다.



LX 연혁



Excellent Today

1

2016년
한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공공 부문 1위 선정

2

2018년 아시아 태평양 스티비상
2개 부문 수상
정부출판물 혁신상 부문 금상
공공정책 커뮤니케이션 혁신상 부문 동상

3

LX토지알림e
올해의 앱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
2015·2016·2017년 3년 연속 수상

大賞

2015·2016·2017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최우수 출판물 부문 대상 수상
2016·2017·2018년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
공공홍보 부문 수상
2018년 사회공헌대상

장관상

NCS

2015년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
NCS 능력중심채용
기획재정부 장관상 수상

A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최고등급
2015·2016·2017년 A등급 달성

- 국가공간정보 품질관리기관 지정
- 고객중심경영(CCM) 우수기관 인증
- 2015·2016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2년 연속 1등급
- 2017년 국가 기록관리 분야 대통령기관 표창
- 2017년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기관 수상



국민을 위한 책임 윤리경영·사회공헌

윤리경영과 사회공헌은 기업의 선택이 아닌 필수적 책임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채로운 방식과 적극적인 자세로 감당해 나갑니다. 국토의 가치를 찾는 일로부터 시작되어 국가와 국민까지 생각하는 LX의 진심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토정보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다



LX 임직원 청렴교육 이수율(2017년)

100%

LX는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섭니다

LX는 공공기관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여 청렴 문화 정착과 확산에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합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Clean LX’를 감사 비전으로 삼고, 전 직원과 청렴에 대한 공감대 및 의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관장이 직접 직원들과 만나 청렴 활동을 펼치며 현장 커뮤니케이션, 윤리경영워크숍 등을 실시합니다. 또한, 청렴 관련 교육과정을 체계화하여 인터넷 및 우편 원격 교육과정 등을 통해 업무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LX해우소는 내·외부 구분 없이 100%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부패신고센터로 개편한 후 단 한 건의 부패사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북 청렴클러스터를 통한 청렴누리문화제는 청렴 활동을 소재로 다양한 문화 공연을 펼쳐 임직원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청렴 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이루는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직무능력중심(NCS) 채용 성과
신입사원 이직률 ZE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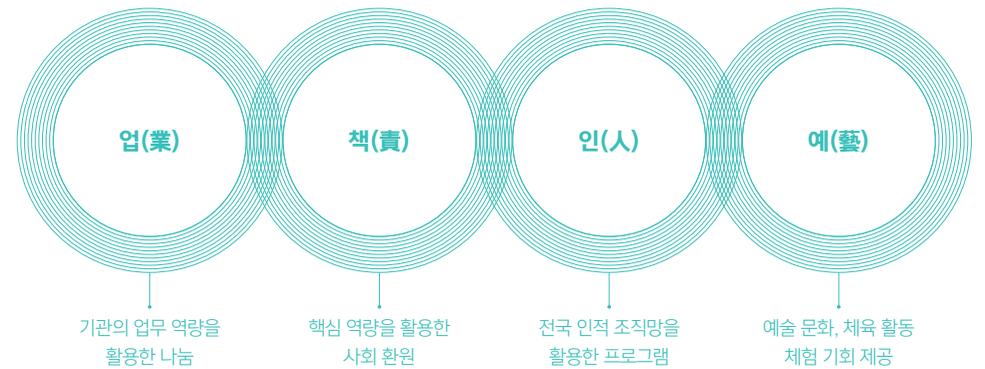
0%

LX는 국가 정책을 적극 실천합니다

2013년 LX는 공공기관 최초로 직무능력중심(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기반의 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스펙이 아닌 인성과 자질, 적성, 직무역량 및 발전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평가해 직무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채용한다는 국가 정책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2015년 공공기관 NCS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채용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일·학습 병행제 장기현장실습(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IPP)을 운영하며 2017년에는 23개의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앞장섭니다.

열린 고용 정책을 실천해 여성, 고졸, 지역인재,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채용 비율을 정부의 권장 정책에 맞춰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16년부터는 비정규직을 정원의 5% 이하로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력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정규직 목표관리제를 준수해오고 있습니다.

사회공헌브랜드 '누리知'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창조적 사회공헌 실현



사회공헌활동 누적 참여 인원(2017년)

4만 3081명

LX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합니다

LX는 사회적 책임 문화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본연의 업무를 활용하는 나눔으로 LX만의 사회공헌활동을 펼칩니다. 본사와 지역본부를 통합·발족한 봉사단은 사회공헌 마일리지, 기관별 활동 공유 등 다양한 제도를 운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LX의 사회공헌 브랜드 '누리知'를 론칭함으로써, 사회공헌활동을 업(業), 책(責), 인(人), 예(藝) 4가지로 분류해 실행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2011년부터 국립발레단과 함께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꾸준히 이어온 무료 발레 공연과 찾아가는 발레교실, 2006년 창단하여 현재까지 지역 체육의 발전과 비인기 종목 육성을 위해 후원한 LX사 이클 선수단은 LX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입니다. 이 밖에 1사 1촌 자매결연, 지적장애회 등을 통해 LX는 여러 분야에 걸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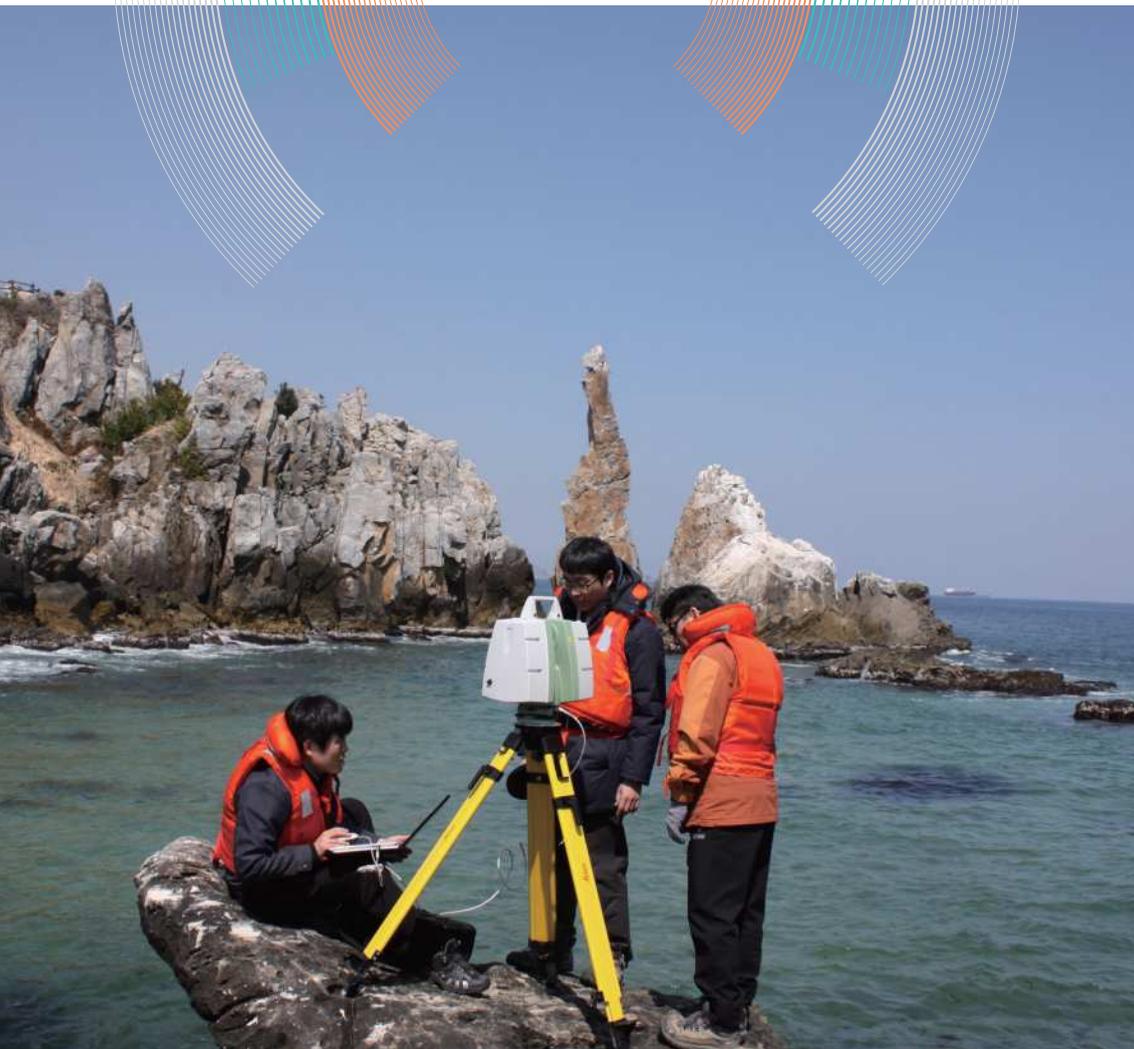


Part 2

국토정보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LX 사업



국토의 기초를 세우다



국토의 초석 지적측량사업

지적(地籍)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국토공간정보 산업의 초석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토정보 전문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오랜 역사 속에서 쌓아온 풍부한 현장 경험과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간벽지부터 땅속 깊은 곳, 바다 위 섬 하나까지 빠짐없이 누비며 지적측량을 통해 우리 국토의 기초를 세웁니다.

지적은 국토정보의 모든 것입니다

국토의 모든 정보를 기록한 지적은 땅에 대한 가치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곧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 및 활용, 토지의 공정한 거래, 등기 관리와 세금 부과 등 국가 행정의 인프라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국토정보 전문기관 LX는 지적측량을 통해 다양한 지적 정보를 구축합니다.

전국 12개 지역본부, 169개 지사에 속한 4000여 명의 LX인들이 국토를 매개로 국민과 만납니다.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신규등록측량, 지적기준점측량 등의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토지 재산권을 보호하고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경계점 표지 무상 제공 서비스, 지적측량결과부 온라인 열람 서비스, 지적측량성과도 무료 재발급 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국토정보 플랫폼 품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적측량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 국토 필지 수

3836만 필지

LX의 측량 필지(2017년)

207만 필지

검교정 센터 성능검사 및 수리 측정 장비 수
(2017년)

902대

지적측량 전문 자격증 수(2017년)

4021개

LX의 측량 기술은 전문 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LX는 지상라이더(3D 스캐너), 드론, 빅데이터 등 새롭게 도입된 첨단 기술 관련 교육을 실시해 전문 역량을 키웁니다. 2010년 처음 도입된 지상라이더 측량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오래된 저수지를 비롯한 침수 피해 지역과 산사태 사고 지역 등을 기록하며, 동굴·광산 등 지하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상라이더 측량 정보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화재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한 복원자료를 구축하며, 국토 연구를 위한 학술 자료로 쓰입니다. 지적측량 기술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LX는 현재 국가로부터 지적기준점 관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LX는 검교정 센터를 운영하여 측량 장비의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통과될 경우 검사필증을 부여합니다. 2016년에는 기술 검사 강화로 측량 민원이 전년 대비 16%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밖에 측량 장비의 수리와 설치 컨설팅, 운용 교육 등을 통해 측량 기술 및 장비의 품질을 향상시켜 나갑니다.



바로처리센터와 LX토지알림e 앱 서비스는 간단한 회원 가입 절차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측량 상담 신청부터 처리 상황, 결과까지 모든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번호

1588-7704

수수료 감감 및 무료 봉사 금액(2017년)

455억 원

LX의 지적 서비스는 국민을 생각합니다

지적 서비스는 국민의 활발한 이용을 통해 그 가치가 더욱 빛납니다. LX의 바로처리센터(baro.lx.or.kr)는 24시간 운영으로 국민들이 언제든지 측량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이는 모바일 서비스 LX토지알림e와도 연계되어 지적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주소지와 현 위치의 대피 및 토지 정보, 기상 특보 등을 모바일로 제공한 LX토지알림e는 원클릭 위급 상황 알림, 증강현실 맛집 정보 기능 등이 더해지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SI 기반의 대국민 국토정보 컨설팅 서비스 'LX-Geo고'를 통해 가치를 향상시키는 토지 활용 방안을 공유함으로써 국민 편익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한편, LX는 지적측량의 업무 특성을 살려 국민 복지를 실현합니다. 취약·소외계층에 무료로 제공하는 행복나눔측량, 자연재해 피해주민들을 위한 수수료 50% 감면 혜택을 주는 스피드측량을 시행합니다. 2013년부터는 국민이 어려워하는 토지·부동산 관련 법률에 대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시작하여 550여 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스마트 국토 시대를 열다



한국형 지적의 완성 지적재조사사업

2012년 시작된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화하여 우리 땅의 가치를 높이고, 공간정보산업의 토대를 닦는 사업입니다. 2030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국토의 디지털 정보가 구축돼 국토정보산업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지적재조사로 정리될 불부합지 비율

14.8%

디지털 지적도로 구축될 필지 수

3760만여 필지

지적재조사로 국토의 새 시대를 엽니다

100년 전 일본에 의해 제작되어 현재까지 사용 중인 종이 지적도는 일본 동경을 측량기준점으로 삼은 점, 지적도마다 서로 다른 축적을 사용한 점, 전쟁 등으로 인한 측량기준점의 소실과 종이라는 물성에 의한 훼손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땅과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아 불부합지가 생겨남은 물론, 토지 소유 분쟁으로 연간 3800억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적도와 땅의 불일치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어려워 공간정보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LX는 국토교통부와 전국 시·도지사 등으로 구성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통해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디지털 지적도 구축을 통한 한국형 지적이 완성되면 국토의 새 시대가 열리고, 불필요한 분쟁의 최소화, IT와 접목한 정확한 공간정보 구축으로 국민 재산권 보호 및 토지 이용 가치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 완료될 예정이며, 측량 비용부터 등기까지 모든 과정은 토지 소유자의 비용 부담 없이 전액 국가 예산으로 시행됩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경제적 효과

3조 4000억 원

지적재조사로 인한 국토의 선진화를 기대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완성될 한국형 스마트 지적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 이용 효율성의 극대화입니다. 불규칙했던 토지 모양을 직선 형태로 정리해 경계 구분과 이용이 편리합니다. 지표·지상·지하 정보를 필지 단위로 통합해 국토에 대한 입체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를 현실 경계로 지적도에 등록해 토지 가치가 향상되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공유지 등의 토지 활용도가 증대합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입니다. 이는 첨단 위성 장비와 IT 기술을 활용해 정확한 지적 정보를 제공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정밀하고 명확한 측량은 토지 경계를 분명케 해 경계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며, 중복되거나 불일치한 정보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들게 합니다.

세 번째는 공간정보산업과의 융·복합 기능입니다. 스마트 지적이 완성되면, 정확한 위치 정보와 상황 파악으로 재해·재난에 대한 예방 및 신속한 대응, 디지털 부동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선진화된 지적 제도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까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우리의 첨단 기술로 가로·세로·높이 1cm 단위까지 토지를 정밀하게 측정해 오차 없는 디지털 지적도를 구축한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절차



국토정보 전문기관 LX가 지적재조사를 이끕니다

LX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적측량·공간정보 전문기관으로서, 지적재조사를 위한 측량과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사업지구로 선정한 지역의 측량 계획을 수립하고, 무인비행장치(UAV)를 활용해 지적재조사 측량에 나섭니다. 필지 단위로 지적 정보를 구축하는 토지 현황 조사를 비롯해 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 업무까지 LX가 책임을 맡아 수행합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세계측지계 변환 규정」에 따라 LX만이 대행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본 동경에 맞춰진 측량기준점을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해 기준점 조사, 공통점 측량, 도면 정비 등의 업무를 실시하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143만 1000필지에 이르는 세계측지계 변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LX에서는 연수교육을 통한 전문 역량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보다 앞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 해외 국가의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최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전문인력 양성 수 (2012~2017년)

1118명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 실적 (2013~2017년)

2143만 **1000**필지



4차 산업혁명을 이끈다



미래 경쟁력 국토공간정보사업

국토공간정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산업입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기술과 지적정보의 결합으로 탄생한 국토공간정보를 통해 현재 우리는 새로운 시대와 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정보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사업이란 든든한 기반 아래 국토공간정보사업을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토공간정보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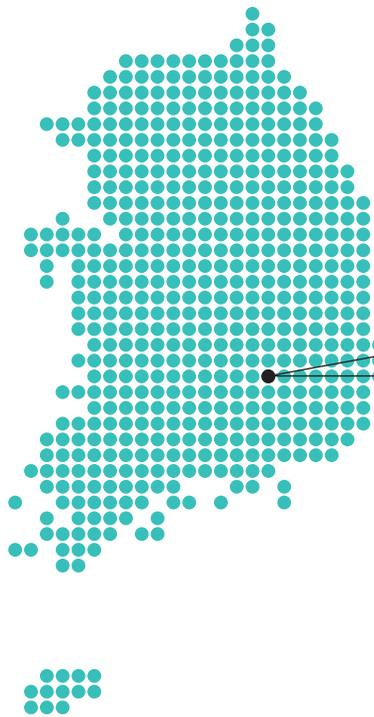
국토공간정보는 정확한 지리를 나타내는 지도와 지도가 가리키는 공간 위에 표현 가능한 모든 정보를 뜻합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 시간과 함께 꼭 알아야 할 기본 정보인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준비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데이터가 모든 산업의 원동력이 됩니다. 국토공간정보는 단순히 정보의 생산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술 등과의 융·복합을 통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증강현실 등 다양한 산업들의 플랫폼이 되어 신(新)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합니다.

LX는 전 국토의 위치 안내와 표시 방식을 통일해 국가 안전망을 구축하는 국가지점번호 검증사업, 대국민 편의를 위해 18종의 부동산 행정 정보를 일원화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지원사업 등을 펼치며 국토공간정보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간정보의 품질관리기관으로서 더 나은 국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국가지점번호 누적 검증 수(2017년)

2,424만 점



LX국토정보기본도



연속지적도



LX국토정보기본도

드론 영상 통합 플랫폼 구축 면적

226 km² (여의도 면적 78배)

LX는 국토공간정보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국토공간정보는 어떠한 데이터와 융·복합 하느냐에 따라 저마다 다른 특색을 지닌 지도를 완성시킵니다. LX의 국토공간정보는 기록의 누적을 넘어 사회·경제·문화 등의 데이터와 결합해 새로운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는 스마트한 국토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UAV는 가장 최신의, 가장 객관적인, 그리고 가장 정확한 국토정보 영상을 제공합니다. 이는 문화재 보존, 도서 지역 환경관리, 재해 지역 조사 등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수색과 탐사 등에 유용하게 쓰입니다. 실제 2017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FIFA U-20 월드컵 코리아에 UAV를 지원함으로써 테러 등 외부 위협에 대한 대응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UAV를 활용한 신속한 국토 변화 모니터링으로 국토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영상정보를 제공하며, 국토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UAV 영상의 통합 관리로 실시간 시계열 영상정보와 공간정보를 중첩해 국토 조사 업무 및 UAV 촬영 계획과 비행 이력, 비행 결과 등 비행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LX가 만드는 국토공간정보는 정보 구축에서 나아가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 재해예방 대책 등의 기초자료 제공으로 정부와 국민을 위해 그 쓰임새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LX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분석 기본 POI

47종

LX국토정보기본도 누적 다운로드 수 (2017년)

1575만 건

LX는 국토공간정보의 플랫폼입니다

국토공간정보의 플랫폼으로서 도약을 시작한 LX는 국가공간정보 포털(nsdi.go.kr)의 관리 권한을 부여받아, 흩어져 있던 데이터들을 하나로 모아 제공하는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LX국토정보기본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 다양한 데이터로의 쉬운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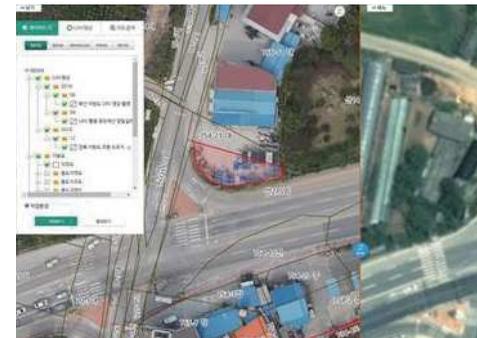
2016년 서비스를 시작한 LX국토정보기본도는 전국 단일의 표준 좌표계로 제작해 토지와 건물, 시설물 등의 부동산 정보를 국토의 모습과 함께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음식·숙박 등의 업종별 골목 상권 분석, 이동 경로와 유동인구 정보를 융합한 인기 레저 코스, 매물·경매 등의 부동산 정보 등 생활과 연계된 다양한 국토정보를 국민 누구나 무료로 편리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드론 영상 통합 플랫폼 등을 통해 LX는 국민 실생활에 유익한 국토공간정보를 구축해 나가고, 국토 공간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나 교육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방송하는 국토인터넷방송(LIBS) 운영으로 국민의 편리를 도모합니다.



국토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아래 좌) 실시간 시계열 영상 지원
(아래 우) 비행 관리 지원



우리 기술의 세계화 해외사업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우리의 지적 제도와 지적측량 기술, 그리고 국토공간정보사업이 한국형 지적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여러 국가의 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가 됩니다. 해외국가와의 업무 협약은 단순한 실적에 그치지 않으며, 이는 지적측량과 국토공간정보산업 전체를 성장시키는 선순환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 기술로 세계를 향해 나아가다

해외사업 진출국가 수(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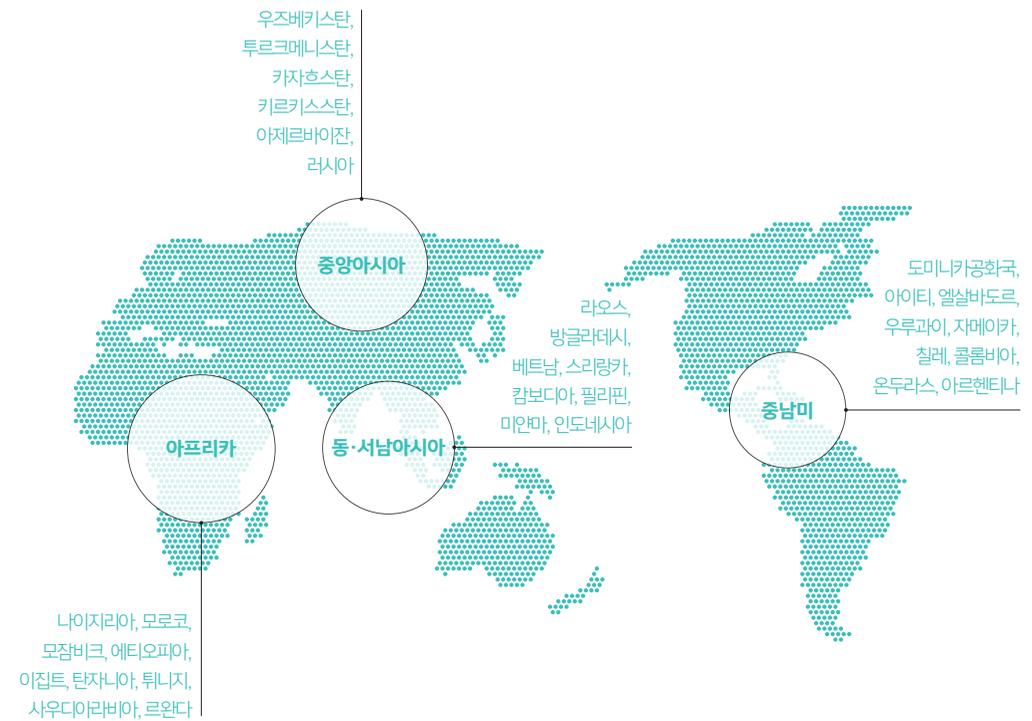
32개국

LX는 국토정보 분야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한국형 국토정보관리체계는 국제 사회에서도 국토정보 관리 및 활용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LX의 토지 행정 노하우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인프라를 토대로 한 LX는 국토정보 시스템 구축을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들에 한국형 지적 제도와 국토공간정보사업을 전수합니다.

세계은행은 LX를 2016년 인도네시아, 키르키스탄, 튀니지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국가 토지 정보화 수준 진단 및 인적 역량강화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LX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토지 관리 시스템을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중장기 역량강화를 위한 커리큘럼을 설계하며, 국내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대상국별 맞춤형 교육 등을 시행합니다.

2006년 라오스 현황측량사업으로 시작한 LX의 해외사업은 최근 우루과이에서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을, 우즈베키스탄에서 국가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 중입니다. 양적 성과가 아닌 질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해외 시장 개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로드쇼에 참가한 민간기업 수 (2013~2017년)

65개

LX는 우리 기술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합니다

LX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국제측량사연맹 가입과 국제 지적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세계 여러 국가와 꾸준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ESRI사, 네덜란드 지적청 등 총 10여 개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토지 행정 및 지적 관련 해외사업의 입찰 경험이 많은 기관과 전략적인 업무 제휴를 맺었습니다. 매년 125개국 약 1200명의 토지·공간정보 관계기관 인사가 참석하는 세계은행 연례회의 행사에도 참가해 LX의 역량과 보유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에 열정을 쏟습니다.

한편,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 거점으로 자리한 해외진출지원센터(gisc.lx.or.kr)에서는 대상 국가에 대한 정보 조사부터 주주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마케팅 전략을 시행합니다. 2013년부터는 공간정보 해외 로드쇼를 해마다 개최함으로써 공간정보시장을 확보하고, 우리의 공간정보 기술력 홍보와 LX의 국제 신뢰도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외 연수생을 위한 LX글로벌연수센터가 세워지면, 지금보다 한층 더 발전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다



공공과 국민의 상생 산업진흥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토정보 전문기관이자 공공기관입니다. 선두에서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초석이 되어 산업진흥을 뒷받침하며, 상생을 통한 협력으로 민간과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적 소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LX는 양질의 연구와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미래를 위한 국토공간정보를 탐구합니다

LX는 공사 창립 이래 산업과 기술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 시대에 적합하고 유용한 지적 관련 연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간정보연구원(www.lxsiri.re.kr)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공간정보산업을 선도하고 육성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국내 유일의 공간정보 연구기관으로서 국가의 공간정보 정책을 지원하는 연구부터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연구, 연구개발 네트워크의 강화로 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산·학·연과의 공동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성과는 그간 학술지 「지적과 국토정보」, 「공간정보매거진」 등을 통해 꾸준히 발표해왔으며, 2017년에는 공간정보산업 시장의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공간정보 뉴스레터」를 창간하고 메일링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 진출을 모색하기 위한 스마트국토엑스포와 지적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려는 노력을 지속합니다.

누적 지식재산권(2017년)

471건

누적 연구개발 추진 실적(2017년)

432건

연수교육·수탁교육을 통해 양성한
2017년 전문 인력

3554명

공간정보아카데미 수료자의 취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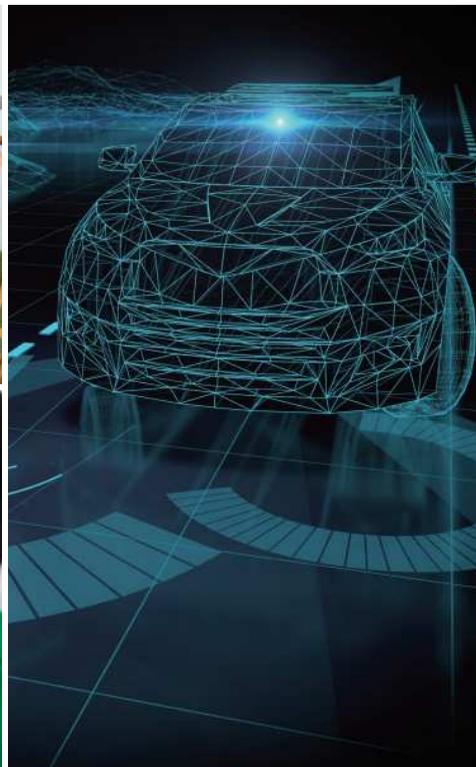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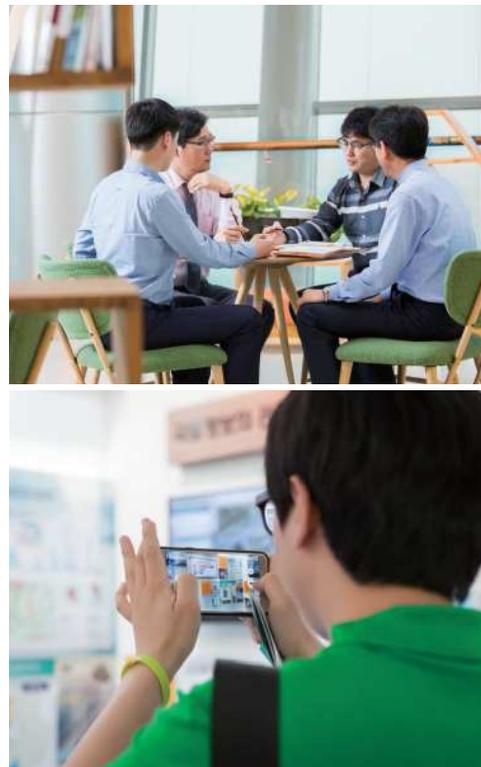
78%

창의적인 국토정보 전문가를 키웁니다

인재는 산업 발전의 밑바탕이자 원동력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국토정보 전문가의 양성은 국토공간정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에 기여합니다. 이에 LX는 국내 유일의 국토정보 전문 훈련기관인 국토정보교육원(www.lxcti.or.kr)을 통해 임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에 국토정보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꾸준히 양성합니다. 교육 대상 또한 확대하여 임직원을 비롯한 일반인들까지도 실무 교육과정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공간정보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재직자 직무 능력 강화 및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산업 맞춤형 교육 훈련을 위해 LX공간정보아카데미(lxsiedu.or.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LX공간정보아카데미는 정부 부처 간(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협업을 통한 전략적 재정 지원사업으로 전 과정 무료 교육입니다. 민간중소기업의 재직근로자를 강사로 위촉함으로써 현장 실무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인프라(교육장 지원) 등 국토공간정보산업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도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LX형 성과공유 모델별 과제 및 추진성과



해외 시장 정보 제공(2017년)

355건

LX가 지원한 스타트업(2016~2017년)

20개사

협력을 통해 국토공간정보산업을 진흥합니다

공공과 민간의 상생 협력으로 성취하는 동반성장은 산업 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한 융·복합 시대를 맞아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LX 또한 동반성장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추진체계와 LX형 성과공유 모델별 과제를 마련해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희망펀드 등을 조성해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LX의 인프라를 활용한 해외 진출, 공간정보 기술의 공동 연구를 추진합니다.

또한, 국토공간정보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LX 공간정보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공간정보 경진대회 등을 꾸준히 열어 산업 관련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합니다. 수상 팀(개인)에는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부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인큐베이팅 과정, 이후 실제 사업화와 시장 진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더불어 LX에서 제작한 10대 미래 전략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해 국토공간정보산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기업의 성장을 든든히 뒷받침합니다. 이외에도 국내 여러 대학과 협약을 맺고 장기현장실습(IPP)을 실시하는 등 국토공간정보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